



전북농협, 초등학생들과 함께한 스쿨팜 식(食)체험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7일 익산초등학교(학교장 정태식)에서 도시농업기반 사업인 스쿨팜을 통해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작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전북농협 도농교류 사업의 일환인 스쿨팜은 학교내 유휴 부지나 자투리 공간에서 텃밭 채소작물 재배, 비체함장 조성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도시농부 체험으로 농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다. 식(食)체험은 스쿨팜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30개 학교 중 체험을 신청한 학교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익산초등학교 외에 전주, 익산, 군산 지역 11개 학교 6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체험에서 큰 관심과 호응을 보인 아이들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아채햄버거를 만들면서 농업 가치와 먹거리의 중요성 및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인공지능,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상기시키고 투명한 조직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청렴의 중요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사례 △보조금 집행과 처리 등 실무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례 기반의 전문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도동동, 1일 1가구 소통행정 소상공인까지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주 목요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알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할 계획으로, 최근 증가하는 노쇼(No-Show) 사기 예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과 상인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청소년 생명존중 체험부스 운영

남원시는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과 최근 개최된 2025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가치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센터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주제로 부스를 꾸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스트레스 및 우울 자가검사 △정신건강 OX퀴즈 △정신건강 정보 제공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부 인증’ 현장중심 지원기관 우뚝

전북여성가족재단, 중기부·행안부 장관상 수상 쾌거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먼저, 2025 전북중소기업인대회에서 여성고용 확대, 일·생활 균형 지원 상용직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재단 산하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는 119통역봉사단 운영을 통해 도내 6만여 외국인 주민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언어 장벽으로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전북 소방본부와 협력해 통역봉사단을 운영하고, 외국인 대상 119신고요령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봉사단은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99명으로 구성, 15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119상황실과 외국인 신고자 간 실시간 3자 통역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지역개발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본사에서 주관한 2025년 농어촌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산어촌의 고유한 지역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공공디자인을 발굴·확산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내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전북본부 예산과 본사의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전국 9개 지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무진장지사는 무주군 적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오색단풍이야기센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색단풍이야기센터'는 무주 적상면의 스카이다이빙을 모티브로 한 지붕 선형, 농촌 경관과 어우러지는 색채 구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 배치로 농촌다움과 현대적 기질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119HERO 구급대원 표창 수여식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7일, 심정지 환자의 생명 회복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119HERO 구급대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19HERO는 구급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심정지 현장에서 △전문 의료지도 수행 △약물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적정성 △현장 판단력 등의 수행을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에 선발된 오영도·윤성혁·이원철 식정119안전센터 소방사 3명은 다수의 심정지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소생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왕정동, 1일 1가구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규)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이불세탁 서비스는 남원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전문 세탁장비를 탑재한 이동식 세탁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직접 세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형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 어르신은 "이불이 크고 무거워서 매번 세탁이 걱정이었는데, 마을로 찾아와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구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교류행사

임실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서기성, 여성회장 김인순)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구례소방서를 방문해 구례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실·구례 의용소방대 간 유대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 소속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환영식 및 기념촬영 △의용소방대 활동 수법시례 발표 △소방안전 정책 및 현안 공유 △지역 명소 탐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임실=전홍준 기자

무주군, ‘고흥군 리그북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서 기량 뽐내

무주군 차범군 축구교실 소속 초등학생 39명이 지난 5일 전남 고흥군 박지성운동장에서 열린 '고흥군 리그북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참가해 1학년(2위)을 제외한 전 학년이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과 고흥군 차범군 축구교실 소속 학생들과 순천 축구 유소년팀 간의 교류전을 통해 실전 경험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단법인 팀차범(Team Chaboom)과 고흥군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총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1학년~4학년은 학년별 4개 그룹, 5~6학년 1개 그룹 등 5개 그룹이 경기를 펼쳤다. 각 팀당 5명씩 출전해 전·후반 평균 6분씩 약식 경기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무주군은 1학년 2위, 2~3학년 각 1위, 4학년 1, 2위, 5~6학년 1,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 후에는 우승팀 트로피와 리그북 메달, 사인볼 등이



수여되는 시상식이 이어져 참가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5~6학년 학생들은 "다른 지역 친구들과 경기도 해보고 무엇보다 우승까지 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축구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차범군 축구교실은 팀차범(Team Chaboom)이 주최하고 무주군이 후원하는 유소년 축구교실로 인구감소 지역과 스포츠 소외지역에 건전한 유소년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23년 시작했다. 올해까지(3~11월, 매주 목요일 / 7~8월 방학) 3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은 차범군 이사진을 비롯한 전문 지도자들의 코칭을 받으며 대회 리그전 등을 경험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장수교육지원청 일일명예교육장 위촉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7일, 전북교사노동조합 정재석 위원장을 제1회 일일명예교육장으로 위촉하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부서를 순회하며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일명예교육장 위촉은 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교사 대표가 직접 교육행정의 운영 과정을 체험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 교육현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관내 여러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중점 추진 중인 '늘봄학교' 운영 실태와 교원업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의 중심은 학교 현장에 있으며, 교사들



이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 7일부터 2025년 하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 운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7월 피해방지단 30명과 읍·면 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 포획 업무 지침,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포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기전대, 베트남서 해외봉사활동 펼쳐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베트남 잘라이성과 하노이 일대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에는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등 재학생 19명과 교직원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지 교육기관 7곳을 방문해 구강보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환경교육, 체육놀이 등 전공 연계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베트남 잘라이성의 지역 특성과 현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호치민시 사범대학교 잘라이 분교의 대학생들과의 교육적 교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봉사활동에 3번째 참여한 황예진(치위생과 3년) 학생은 "베트남 유아 중 80% 이상이 구강 질환을 갖고 있다"며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정은성 기자